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Der Rosenkavalier

R. Strauss 장미의 기사

10. 4 Fri. 19:30 - 5 Sat. 15:00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Der Rosenkavalier

R. Strauss 장미의 기사

10. 4 Fri. 19:30 - 5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Der Rosenkavalier

R. Strauss 장미의 기사

10. 4(금) 7:30pm - 5(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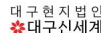
대구문화예술킨용원



주관



후원



Der Rosenkavalier

R. Strauss 장미의 기사

개요

작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1864-1949

대본 휴고 폰 호프만슈탈

원작 몰리에르의 《푸르소나크씨》,
루베 쿠브레이의 소설 《포블라 기사의 사랑》 등

배경 18세기 중반 빈, 마리아 테레사 통치 시대

초연 1911. 1. 26 독일 드레스덴 궁정 오페라극장

형식 3막

언어 독일어(한글/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에반-알렉시스 크리스트

연출 조란 토도로비치

출연진

마살린 Sop. 조지영

바론 옥스 Bass 박기현

옥타비안 M.Sop. 김선정, 안태아

파니날 Bar. 권성준, 정제학

소피 Sop. 이해정, 박소영

이탈리안 테너 Ten. 김효종

발자키 Ten. 유호제, 이희돈

안니나 M.Sop. 이아름

마리안느 Sop. 박누리

공중인, 경찰 Bass 이기현

가게주인 Ten. 이요섭

마살린 / 바론 하인 Ten. 장계초, 전목주
Bar. 우영빈, 소영섭

모자상인, 어린이 Sop. 박예솔

동물상인, 어린이 Ten. 한승엽

어린이 Bar. 황준원

Bass 박준모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핀스튜디오

극단 늘해랑

INFORMATION

Composer Richard Strauss, 1864-1949

Librettist Hugo von Hofmannsthal

Form 3 acts

Language German(Korean/English Super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Conductor Evan-Alexis Christ

Director Zoran Todorovichi

CAST

Marschallin Sop. Jo Jiyoung

Baron Ochs Bass Park Kihyun

Octavian M.Sop. Kim Seonjeong, An Teaa

Faninal Bar. Kwon Seongjun, Jung Jeahak

Sophie Sop. Lee Hyejung, Park Soyoung

Italian Tenore Ten. Kim Hyojong

Valzacchi Ten. You Hoje, Lee Huidon

Annina M.Sop. Lee Arum

Marianne Sop. Park Noori

Notar, Polizeikommissar Bass Lee Kihyun

Wirt Ten. Lee Yoseop

Lakaien der Marshallin/Lerchenau'schen Ten.

Zhang Jichao, Tian Muzhou

Lakaien der Marshallin/Lerchenau'schen Bar.

Woo Youngbeen, So Youngsub

Modistin/Kinder Sop. Park Yesol

Tierhändler/Kinder Ten. Han Seungyup

Kinder Bar. Hwang Junweon

Bass Park Junmo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Daegu Opera House Opernstudio

Theater Company Neulhaerang

Contents

목차

Greetings	04	인사말
Composer	06	작곡가 소개
Synopsis	08	줄거리 소개
Scenic Design	09	무대디자인
Exposition of Der Rosenkavalier	10	작품 소개
Costume Design	16	의상디자인
Creative Team	20	주요제작진
Cast	22	출연진 및 출연단체
Staff	31	제작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에서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축제로서 세계 각국의 뛰어난 작품들을 국내에 공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을 모티브로 한 창작 오페라 개발에도 힘써 대한민국 오페라의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막작 <장미의 기사> 등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작품들과 독립운동가 이육사를 테마로 한 창작 오페라 <264, 그 개의 별>, 오페라의 고전인 <라 트라비아타> 등 창의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균형감 있게 편성하여, 관객들이 높은 예술성과 더불어 오페라의 친근한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가 관객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오페라 애호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색빛깔로 물드는 가을, 새로운 오페라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갑균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로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36일간 펼쳐지는 풍성한 축제의 여정 동안, 대구는 오페라의 향연으로 물들다. 갈 것입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세계적인 오페라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지역 음악 예술인들을 비롯해 역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오페라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관심과 응원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년을 지나 새로운 오페라의 시대를 맞이하여 '길을 열고 나아가다'라는 주제 아래 작품성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대중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온 대구오페라하우스의 명성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저력을 발산하며 대구시민들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장미의 기사>는 30년 만에 대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자체 제작 오페라이며 슈트라우스의 최대 흥행작으로 명망하고 유쾌한 희극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합작 오페라 <광란의 오를란도>는 '사계'로 유명한 비발디의 바로크 오페라로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264, 그 개의 별>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창·제작한 작품으로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의 결실입니다. 대구 근대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며 첫 전막 오페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 작품은 한국에서 잘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국립오페라단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와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 오페라극장의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 푸치니 오페라 갈라콘서트>까지 다채로운 구성이 돋보이며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프린지 콘서트'와 특별강의 '프리마 벨라 프리마' 등 오페라를 한층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하였으니 관객 여러분들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함께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람하실 <장미의 기사>는 혁신과 파격의 작곡가로 알려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8세기 중엽 합스부르크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빈을 상징하는 왈츠의 선율로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입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 함께 해준 정상급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막작 <장미의 기사>를 필두로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관객 여러분께 울림이 있는 예술의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1864-1949

Richard Strauss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Richard Strauss(1864-1949)는 뮌헨 궁정 오페라 극장의 호른 주자였던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Franz Josef Strauss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정규 음악 교육을 받고, 작곡과 이론도 공부하였다. 특히, 소년 시절에는 뮌헨 왕립 오케스트라 리허설에 참여하여 음악이론과 관현악법 등 꾸준한 교육을 받았고, 18세가 되던 1882년부터는 뮌헨 대학에 들어가 철학·미학·문학사를 수학했다. 이후 대 지휘자 한스 폰 뷔로의 눈에 띄어 그의 추천으로 마이닝겐 궁정악단의 지휘자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슈트라우스는 평생 지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각지의 궁정 극장에서 활동한 이후 1889년부터 1895년까지 바이마르 궁정 극장의 지휘자로 역임하였다. 그 당시 최초의 교향시 <돈 후앙>을 작곡하며 천재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에게도 인정받게 된다. 1896년에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교향시를 작곡했으며, <영웅의 생애>(1898), <가정교향곡>(1903) 등 실내악곡과 많은 가곡들을 작곡했다. 이 무렵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약 20년간 슈트라우스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음악 활동기가 되었다.

19세기 말, 슈트라우스는 오페라 작곡에도 관심을 가졌다. 처음으로 도전했던 오페라 <군트람>(1894)과 <사라진 불>(1901)이 치명적 실패로 남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연극을 토대로 한 그의 최고 역작 <살로메>(1905)를 통해 오페라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물론, 슈트라우스 특유의 불협화음이 사용된 <살로메>는 대중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단 1회의 공연으로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가 집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불협화음이 한층 더 돋보이는 <엘렉트라>(1908)를 선보였으며 왈츠의 선율이 흐르는 희곡 <장미의 기사>(1911) 등 전쟁이 발발하여 작곡을 잠정 중단한 1939년까지 주기적으로 오페라를 계속해서 작곡했다. 한편, 나치가 정권을 잡을 무렵인 1932년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하우스의 지휘자로 취임해 독일 음악의 보급에 힘썼으며, 나치 정부의 추대로 1933년에는 음악국 총재에 임명되어 친(親)나치적으로 비추어질 행보를 보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대인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대본을 바탕으로 한 <말 없는 여자>(1935)를 작곡하는 등의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국 총재를 그만두고 산장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1945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슈트라우스는 나치와의 협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의 작품들은 악계에서 매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84세 되던 해 나치 숙청 재판소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면서 다시 그의 작품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슈트라우스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 85세가 되던 1949년에 생을 마쳤다.

1막 후작부인의 침실

서른 두 살의 후작부인 마살린과 그녀의 정부인 열일곱의 옥타비안은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침식사를 마친 때, 소란스러워지며 마살린의 친척인 옥스 남작이 등장한다. 옥타비안은 하녀로 변장하고 바람둥이 옥스는 그런 옥타비안을 여자로 착각하여 집적댄다. 옥스 남작의 신부가 될 여인은 돈을 주고 작위를 산 부호 파니날의 딸이다. 옥스 남작은 자신의 결혼의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마살린을 찾아와 인사를 한다. 그리고 마살린은 옥타비안을 결혼 전 은장미를 건네 줄 '장미의 기사'로 추천한다. 후작부인은 호색한 옥스 남작을 경멸하면서도 어린 애인과 밀회를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회의감에 빠진다. 또한 옥타비안이 젊은 여인을 만나 자신을 떠나갈 것 이란 생각에 옥타비안을 냉랭하게 대하고, 옥타비안은 화가 나 나가버린다.

2막 파니날의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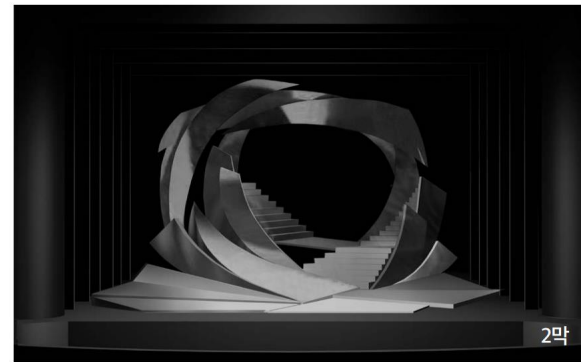
장미의 기사를 맞이할 준비로 온통 들떠있는 파니날, 그리고 결혼의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들떠있는 소피. 그 중 장미의 기사 옥타비안이 본모습으로 돌아와 파니날 저택을 방문하고, 옥스가 보낸 은장미를 건넨다. 순간 옥타비안과 소피는 첫눈에 반해 서로에게 빠져든다. 후에 옥스 남작이 도착해 소피에게 예의없이 굴며 희롱하고 옥타비안은 격분해 남작에게 상처를 입힌다. 파니날의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고 소피는 남작과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 그 중 옥타비안은 사람을 시켜 하녀인 척 옥스에게 편지를 보내 내일 밤 몰래 만나자 한다. 신이 난 옥스는 흥얼거리며 즐거워한다.

3막 빈 근교의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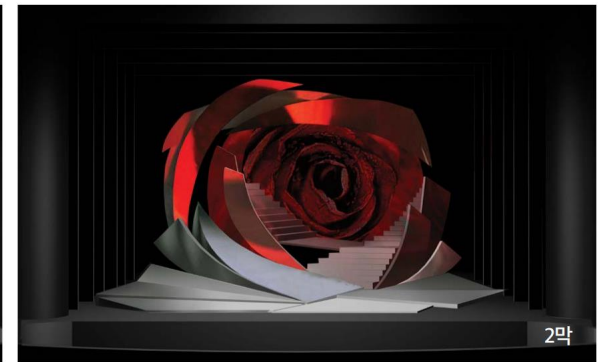
옥스남작은 음식점에 방을 잡고, 마살린의 하녀(하녀로 변장한 옥타비안)을 기다린다. 옥타비안은 하녀로 여장하여 옥스를 유혹하고, 옥스는 하녀를 안으려 하다가 옥타비안의 얼굴과 닮은 하녀를 보며 놀란다. 그때 옥타비안이 대기시켜놓은 하녀와 고아들이 나타나 옥스를 남편, 아빠라 부르며 아우성을 치고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은 풍속을 해친 죄로 옥스남작을 체포하려 하고 옥타비안의 전갈을 받고 파니날까지 찾아온다. 그리고 파니날은 옥스 남작에게 파혼을 선언한다. 이 때 후작부인 마살린이 나타나 다 장난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내고, 남작을 궁지에서 구해준다. 옥스 남작은 마살린과 옥타비안의 관계를 눈치채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다. 마살린은 옥타비안과 소피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아차리고 소피에게 양보한다. 마살린이 떠나고 소피와 옥타비안은 뜨겁게 포옹하며 막이 내린다.



1막



2막



2막



3막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어도

음악평론가 이 용 숙

*시들어가는 장미와 가라앉는 파도는
지상의 쾌락이란 한때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쳐 주리니
우리가 그 매혹적인 모습을 쓰다듬고 어루만지자마자
그들은 마치 교활한 유령처럼 달아나버리네*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의 모테트 '시들어가는 장미'(Rosa que moritur)는 그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에 어울리는 이런 서글픈 가사를 지녔다. 독일 작곡가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가 1926년에 드레스덴에서 초연한 오페라 <카르디야크 Cardillac>는 20세기 오페라지만 배경은 17세기 루이 14세 시대의 파리다. 여기 등장하는 레이디(Lady)는 파리 최고의 보석세공사 카르디야크의 작품을 선물로 가져올 연인을 기다리며 관능적이고 서정적인 아리아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어(Die Zeit vergeht, Rose zerfiel)'를 노래한다.

이처럼 장미는 젊음과 열정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동시에 이 모든 가치의 유한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시들어가는 장미를 바라보는 마음은 서글픔 또는 고통을 담고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 대본을 쓴 오스트리아 작가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은 이에 착안해 '은으로 만든, 시들지 않는 장미'를 고안한다. 이 은장미는 결혼할 신부에게 신랑이 바치는 청혼의 선물로, 현재의 젊음과 열정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박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 오페라에서 신부에게 은장미 전달의 예를 갖추는 인물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젊은 친척이어야 하고, 바로 이 '함진아버' 역할을 하는 인물을 '장미의 기사'라고 부른다. '장미 문장(紋章)이 새겨진 방패를 든 기사(騎士)가 아니라 바로 청혼의 전령이라는 뜻이다. 신부의 집에 장미의 기사를 파견하는 일은 이 오페라의 배경이 된 18세기 빈에 실제로 존재했던 풍습은 아니고 대본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쨌든 그로 인해 극 속에서는 갈등이 발생한다. 신부가 혼인 직전에 바로 이 장미의 기사와 사랑에 빠지기 때문이다.

슈트라우스 소재와 음악적 스타일의 다양성

독일어 오페라 분야에서 바그너 다음으로 큰 비중을 갖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틸 오일렌

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돈 후안> 등의 교향시로 유명하며, 마흔이 넘어 오페라 <살로메>(1905)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다. 슈트라우스는 궁정음악가인 아버지 덕분에 일찍부터 뮌헨 궁정악장에게 음악 수업을 받았고, 대학에서 철학과 미학을 전공하며 쇼펜하우어를 탐독했다. 바그너와 리스트에 심취했던 초기에는 그들의 아류로 평가되는 작품들을 작곡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찾아내면서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초기 오페라인 <살로메>와 <엘렉트라>(1909)에서 아방가르드 음악의 최첨단으로 치달았던 슈트라우스는 <장미의 기사>(1911)에서 다시 조성음악과 '멜로디 오페라'로 복귀했고, 이후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그림자 없는 여인>, <아라벨라>, <말없는 여인>, <다나에의 사랑>, <카프리치오> 등 다양한 주제로 최고의 소프라노 배역을 위한 오페라들을 작곡했다. 뮌헨, 바이마르, 베를린, 빈 오페라극장 지휘자를 역임하며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펼친 그는 말년에 나치 정권에 동조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유대인이었던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동정여론도 있었다.

<엘렉트라>부터 <아라벨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오페라 작곡가와 대본작가로 환상의 콤비를 이뤘던 슈트라우스와 호프만스탈은 1900년경에 서로 알게 되었는데, <엘렉트라> 작업이 끝나자 슈트라우스는 "모차르트 희극 같은 오페라를 만들고 싶으니 적당한 소재를 골라 대본을 써 달라"고 호프만스탈에게 부탁했다. 초기작인 <살로메>와 <엘렉트라>가 그 파격적인 소재와 음악으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난해한 현대음악이 관객을 오페라극장에서 멀어지게 할 거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작곡가의 주문에 고심하던 호프만스탈은 마침내 슈트라우스의 마음에 꼭 드는 스토리를 구상해냈다. 18세기 중엽, 황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정 시대 빈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장미의 기사>였다.

20세기 오페라가 소환한 모차르트 스타일

1막은 마살린('마살린'은 군사령관의 부인이라는 뜻. '베르덴베르크 후작부인'이라고도 불린다. 이름은 '마리-테레즈'지만, 극 속에서는 계속 '마살린'으로 표기된다)의 화려한 침실에서 시작된다. 서른 두 살의 마살린(소프라노)과 마살린의 친척이자 정부(情夫)인 열일곱 살의 옥타비안 백작(메조소프라노)이 은밀한 사랑의 밤을 보내고 난 뒤 옥타비안은 연인의 사랑스러움을 예찬한다. 아침식사를 마쳤을 때 밖이 소란스러워지면서 부인의 친척인 옥스 남작(베이스)이 들어온다. 남에게 들키면 안되는 관계여서 옷장 속에 숨었던 옥타비안은 옷장 안에서 하녀로 꾸미고 남작 앞에 나타난다. 하지만 바람둥이 옥스 남작은 옥타비안을 여자로 알고 그를 유혹하려 한다.

슈트라우스는 이 옥타비안 역을 원래는 소프라노 배역으로 작곡했다. 그러나 마살린과 음색을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현대에는 대부분 메조소프라노가 이 역을 노래한다. 여성 가수가 남장을 하고 남성 역할을 하다가 극중에서 다시 여장을 하는 설정은 물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모방한 것이다. 메조소프라노가 분장한 미소년 옥타비안의 모습에서 관객은 누구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10대 바람둥이 소년 케루비노를 떠올린다.

옥스 남작은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는 돈 많은 부르주아와 결혼하는 흔한 귀족 남성의 예로 등장하는데, 자신의 결혼을

알리는 마살린과의 대화에서 옥스 남작의 천박한 인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아침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마살린을 찾아와 청탁을 하거나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 역시 당대 귀족사회의 혼한 풍경이다. 이탈리아 테너 가수가 마살린에게 아리아를 바치는 장면도 흥미롭다. 후작부인은 장난기가 발동해 옥타비안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옥스 남작에게 '장미의 기사'로 추천한다.

옥스 남작의 신붓감은 수도원에서 자랐고 열다섯 살이 채 안된 소녀로, 신부의 아버지 파니날(바리톤)은 돈으로 귀족의 작위를 사서 이제 막 신승귀족의 대열에 합류한 장사꾼이다. 마살린은 호색한에다 책임감 없는 옥스 남작을 경멸하지만, 어린 애인과 밀회하는 자신도 별로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에게 회의를 느낀다.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진 마살린은 시간에 관한 긴 독백을 노래한다. "시간이 흐르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지. 때로 한밤중에 그 소리를 듣고 시계란 시계는 모조리 멈춰놓지만 소용없는 일...". 이 장면에서 관객은 마살린의 불행한 결혼과 외롭고 우울한 삶을 알게 된다.

옥타비안이 머지않아 젊은 연인을 사귀게 되어 자신을 떠나 갈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진 마살린은 그에게 맘에도 없는 냉랭한 태도를 보인다. 옥타비안은 마살린이 자신을 멀리하려 한다며 화가 나 가버리고, 마살린은 자신이 보인 태도를 금방 후회하지만 엇질러진 물이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환상적인 관현악

2막은 장미의 기사를 맞이할 준비로 온 집안이 떠들썩한 파니날의 저택에서 시작된다.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은 소피(소프라노)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마침내 장미의 기사 옥타비안이 찾아와 소피에게 신랑 옥스가 보낸 은장미를 건넨다. 3관 편성의 대규모 오케스트라에 하프와 첼레스타가 함께 만들어내는 슈트라우스의 영롱하고 환상적인 음악이 무대를 채우는 이 순간, 옥타비안과 소피는 첫눈에 반해 서로에게 빠져든다. "제가 이 영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라는 옥타비안의 노래로 시작되는 두 사람의 이중창에 작곡가는 천상의 행복이 마음에 사무치는 듯한 음악을 썼다. 그러나 방금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결혼할 신부와 함진아버가 눈이 맞아 상황을 망각한 채 꿈속을 헤매는 이런 장면은 상당히 희극적이다.

뒤에 도착한 옥스 남작이 소피를 말 시장에서 말을 사듯 예의 없이 희롱하자 이에 격분한 옥타비안은 칼을 빼 남작에게 상처를 입히고, 파니날의 집은 아수라장이 된다. 소피가 남작과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자 아버지 파니날은 그럼 다시 수도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딸을 협박한다. 그러는 사이 옥타비안은 사람을 시켜 옥스 남작에게 편지를 보낸다. 남작이 추파를 던진 그 하녀(옥타비안 자신이)가 내일 밤 남작을 몰래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자신의 매력에 여자들에게 여전히 통한다고 생각해 신이 난 옥스는 "내가 없으면 그대는 날마다 슬픔에 싸여 살겠지.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어떤 밤도 길지 않을 걸..."이라고 왈츠 선율로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대본가 호프만스탈은 몰리에르의 희극에서 이 호색한의 캐릭터를 얻어왔지만 슈트라우스는 옥스를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 베르디 말년의 희극 <팔스타프>의 음악을 모방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 재위기간(1745~1765)의 빈 궁정에는 왈츠가 존재하지 않았다.

왈츠가 합스부르크 궁정에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끈 건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간, 그리고 체념의 미학

3막의 무대는 빈 근교의 조용한 레스토랑이다. 옥스 남작은 이곳에 방을 예약해놓고 마살린의 하녀를 기다린다. 옥타비안은 다시 하녀의 모습으로 여장을 하고 나타나 옥스를 유혹하는데, 옥스는 하녀를 포옹하려 할 때마다 자신을 칼로 찔렀던 옥타비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해 두려움에 떤다. 그때 옥타비안이 밖에 대기시켰던 하녀와 고아들이 나타나 옥스를 자신의 남편, 아빠라 부르며 아우성을 친다. 그러자 경찰이 출동해 '풍속을 해친 죄'로 옥스 남작을 체포하려 한다. 옥타비안의 전갈을 받고 현장에 들이닥친 파니날은 사윗감의 형편없는 실체를 보고 파혼을 선언한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마살린은 "그저 장난일 뿐"이라며 경찰관을 돌려보내 남작을 궁지에서 구해준다. 옥스 남작은 마살린과 옥타비안의 은밀한 관계를 눈치 채지만, 소피 앞에서 침묵을 지킨 채 그 자리를 떠난다.

옥타비안과 마살린, 그리고 소피만 남게 되자 마살린은 옥타비안이 새로운 사랑에 빠졌음을 알아차리고, 옥타비안을 소피에게 보내주기로 결심한다. 마살린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소피와 옥타비안은 뜨겁게 포옹하며 "이건 꿈일 거야"라는 환상의 듀엣으로 극을 마무리한다.

<장미의 기사>의 성악부 형식은 가벼운 레치타티보와 아리오소(arioso.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중간 형태)를 오가다가 차츰 고조되는 감정을 이따금 풍성한 멜로디로 폭발시킨다. '시간과 노쇠와 죽음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택한 대본작가 호프만스탈은 "행복하고 황홀한 한 순간에 영원한 시간이 깃들어 있는가?"를 관객에게 묻고 있는 듯하다. 이 오페라가 초연된 1911년은 6백여 년간 오스트리아 황실을 지배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몰락을 앞둔 시점이었다. 다가올 미증유의 전쟁을 예감하지 못하고 유럽이 '벨 에포크'를 즐기던 호황기였지만 1914년에 1차 대전이 시작되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을 건설했던 합스부르크의 야망도 1918년 대전이 끝나면서 막을 내렸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간'을 주제로 체념의 미학을 노래하는 이 오페라는 마살린의 개인적인 상황에 빚대 풍요와 영화를 누리던 시대에 고하는 작별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몰입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명장면 베스트 6

- 1) 1막 테너 가수의 아리아: '내 가슴은 견고하게 무장한 채 사랑을 거부했네'(Di rigori armato il seno)
주인공이 아닌 이 이탈리아 테너 가수는 이 장면에 한 번 등장해서 단 하나의 아리아를 부를 뿐이다. 하지만 멋지게 불러내기 어려운 고난도의 아리아여서 언제나 최고의 테너가 깜짝 등장한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나스 카우프만 등이 이 작은 배역을 노래했다.
- 2) 1막 마살린의 독백: '시간이란 묘한 것'(Die Zeit, die ist ein sonderbar Ding)
외로움 속에 지나가버린 청춘을 서글퍼하는 마살린은 거울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우울해진다. 젊은 연인과

함께 사랑의 밤을 즐기고 있어도 불안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의 덧없음에 괴로워하는 마살린은 시간을 멈추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나 시계를 멈춰놓는다고 독백한다. 깊은 우울함이 묻어나는 음악이다.

3) 2막 옥타비안과 소피의 이중창: '제가 이 영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은장미를 소중하게 받쳐 든 옥타비안은 소피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신세계를 발견한다. 오늘 아침까지 마살린에게 깊이 빠져 있던 그는 한순간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 오케스트라와 성악은 하나로 어우러져 지상을 초월한 감미로움과 관능미를 전달한다. 객석은 이 영롱한 천상의 음악에 숨을 죽인다.

4) 2막 옥스 남작의 독백: '내가 없으면 그대는...' (Ohne mich...)

나이 든 옥스는 젊은 옥타비안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수치를 느낀다. 그런 상황에서 받은 젊은 여성의 편지는 사라졌던 자신감을 한순간에 회복시켜준다. 다시 젊음의 피가 온몸에서 솟구치는 기분을 느끼는 옥스 남작을 나른하게 시작해 갈수록 활력으로 채워지는 왈츠 음악이 위트 있게 표현한다.

5) 3막 마살린-옥타비안-소피의 3중창: '마리-테레즈!'

마살린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두려워했던 일이 너무 빨리 벌어졌다. 그는 젊은 연인을 어린 라이벌에게 빼앗겼음을 인식했다. 그러나 마살린은 화를 내거나 싸우는 대신 품위와 관대함을 보인다. 마음에는 상처를 입었지만 조용히 이별을 건디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살린의 성숙한 처신에 옥타비안은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소피 역시 기쁨에 넘치면서도 뭔가 미안함을 느낀다. 각기 다른 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찬란한 3중창이 이 순간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각인한다.

6) 3막 소피와 옥타비안의 이중창: '이건 꿈일 거야. 현실일 리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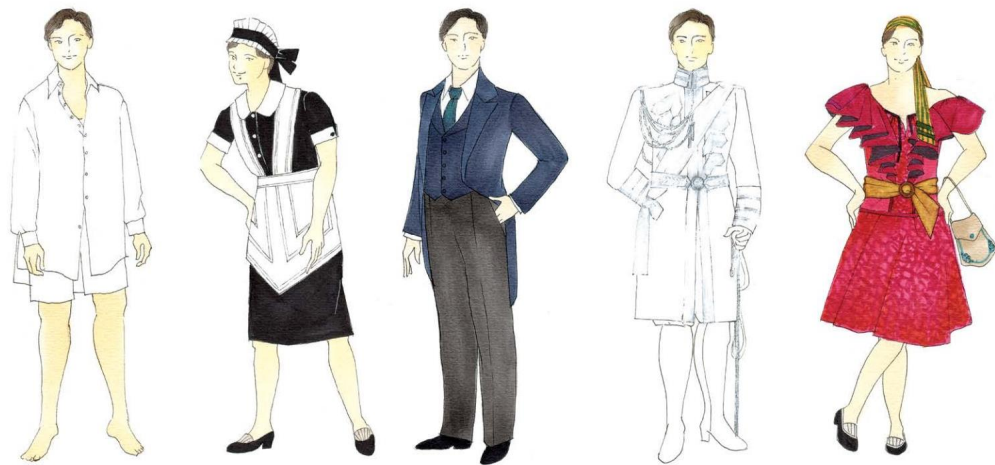
옥타비안은 한순간에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된 자신을 너그럽게 보내주는 연인에게 감사하며, 자유롭게 새로운 사랑에 몸과 마음을 던진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소피는 기쁨으로 충만해 자신의 연인을 품에 안는다. 나이 들고 방탕한 남자와의 결혼을 피한 것도 기쁘지만 그 수렁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와의 결혼이 더욱 감미롭다. 관객은 조금 전까지 바로 앞의 3중창이 <장미의 기사> 최고의 명곡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지막 이중창에서 더 큰 기쁨과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된다.





마살린
Marschallin

바론 옥스
Baron Ochs



옥타비안
Octavian



파니날
Faninal

소피
Sophie

발자키
Valzacchi



안нина
Annina

이탈리안 테너
Italian Tenore

공증인
Notar

경찰
Commissary of Police

마리안느
Marianne



마살린 집사 Major-Domo of Marschallin
 마살린 시종 Lakaien of Marschallin
 모하메드 Mohammed
 마살린 하녀 Housemaid of Marschallin

바론 하인 Lakaien of Baron Ochs
 바론 동료 Colleagues of Baron Ochs



파니날 집사장 Major-Domo of Faninal
 파니날 하인 Lakaien of Faninal
 파니날 하녀 Housemaid of Faninal
 파니날 주방일꾼 Cooker of Faninal

파니날 일꾼 Servant of Faninal



게스트 Guests



플루티스트 Flute Player

고아들 Three Orphans of Noble family

미용사 Hairdresser

미용사 조수 Assistant of Hairdresser



모자장수 Milliner

동물장수 Vendor of Anim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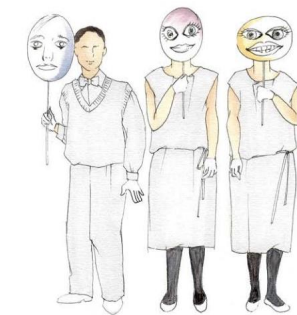
여관주인 Landlord

웨이터 Waiters

음악가들 Musicians



경관들 Watchmen



아이들 Children of Baron Oc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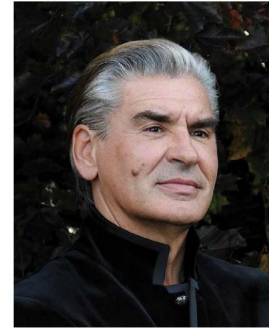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 **정갑균**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연출 수업
-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연출, 독일 칼스루에극장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 & 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145편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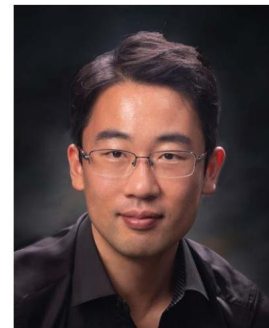
지휘 Conductor | **에반-알렉시스 크리스트** Evan-Alexis Christ

- 하버드대학교 수학 및 작곡 전공,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음악대학 지휘 전공
- 독일 콧부스주립극장 음악 총감독 역임, 뷔르츠부르크 마인프랑켄극장 카펠마이스터 및 음악 감독 역임, 부퍼탈 오페라 카펠마이스터(2005~2008)
- 독일 음악 출판사 협회상 수상, 사라예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극장 <엘렉트라>, <아리아드네 아우프 나소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지휘
- 독일 브레멘필하모닉, 서독일방송교향악단, 독일 북서부필하모닉, 데사우극장오케스트라, 잉골슈타트 챔버오케스트라, 이스라엘 심포니오케스트라, 자그레브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오케스트라, 남서독 슈투트가르트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뉘른베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류블랴나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 마데이라클래식 오케스트라 등 지휘
- 에센알토극장, 비스바덴주립극장, 하노버주립오페라, 카셀주립극장, 본주립극장, 만하임국립극장, 장크트 갈렌 극장 등 객원 지휘
- 대구오페라하우스 <엘렉트라> 지휘
- 독일 임링 페스티벌에서 뮌헨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마탄의 사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박쥐>, <신데렐라> 및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맥베스> 지휘



연출 Director | **조란 토도로비치** Todorovichi

- 오페라 <토스카>, <로엔그린>, <오텔로>, <파르지팔>, <노르마>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바이에른 주립 오페라, 베를린 슈타츠오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라 모네 왕립 극장, 빈 슈타츠오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로스앤젤레스 오페라하우스, 도이체 오퍼 베를린, 툴루즈 캐피톨 극장, 마르세유 시립오페라극장,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드레스덴 젬퍼 오퍼, 바르셀로나 그란 리세우 극장, 마드리드 왕립 극장, 테아트로 콜론,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 도쿄 신국립 극장 등 공연
- 마르첼로 비오티, 파비오 루이지,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브루노 바르톨레티, 마르코 아르밀리아토, 필리프 조르단, 키릴 페트렌코 등 협연
-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테너 10인으로 선정
- 빈 슈타츠오퍼 <유대 여인> 녹음, 바이에른 오페라 <노르마> 녹음 및 2개의 솔로 앨범 녹음
- <나비부인> 제작 연출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부지휘자 Assisnant Conductor | **한주현** Han Juheon

- 선화예고 졸업,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업
- 독일 뮤지컬 어워드 2021 베스트 뮤지컬상 수상
- 라이프치히 홀로코스트 80주년 기념 음악 작곡 및 지휘
- 독일 프라이베르크 시립 오페라극장 수석지휘자 역임,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 오페라극장 상임 지휘자 역임
- 불가리아, 만하임, 바덴바덴, 하이엘베르크, 하일브론, 이탈리아 오시모, 프라이베르크, 드레스덴 등 지휘
- 비엔나 방송교향악단 및 조수미와 앨범 녹음 작곡 및 지휘
- 현) 이탈리아 Pasqua Musicale Arcense 지휘자



마샬린 Sop. Marschallin Sop. | **조지영** Jo Jiyoung

- 대구 가톨릭대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Konzertexamen 졸업,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학, 석사 졸업
- 미국 마르첼로 조르다니, 스페인 엘다, 몽세라 카바예, 프랑스 마르망데 등 국제콩쿨 우승 및 수상
- 호세 카레라스, 후안 디에고와 함께 벨칸토 3인으로 선정
-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 리세우 오페라하우스 몽세라카바예 데뷔 50주년기념 초청 솔리스트, 모차르트 레퀴엔 독일 남부 투어 솔리스트, 유럽 최대 오라토리오 축제 파사우 솔리스트 초청 솔리스트, 서울시 합창단 모차르트 C mall, 울산 시립헨델 메시아 솔리스트
- 모차르트 CD 녹음(Hannover Nord West 필하모닉), 한국가곡 정애련 작곡가 음반 녹음
- 오페라 <가락국가>, <선화공주>, <윤심덕>, <투란도트>, <마술피리>, <유쾌한 미망인>, <라 트라비아타>, <후궁으로부터 유괴>, <헨젤과 그레텔>, <코지 판 투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나비부인>, <라 보엠> 등 국내 및 해외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스페인 A.M Agent Trtistico, Carlos Caballe, A.Z오스트리아 Alle Klassik, 휴 클래식, 리릭컴퍼니 소속



바론 옥스 Bass Baron Ochs Bass | **박기현** Park Kihyun

-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 디플롬,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이태리 로마 아레나 아카데미아 디플롬
- 체코 드보르작 국제 콩쿨 우승 및 최고표현상, 국립극장상, 모짜르트상 수상, 독일 파사우 국제성악콩쿨 특별상, 독일 쾰른 국제 성악 콩쿨, 독일DEBUT 성악콩쿨 입상
- 헨델 페스티벌 헨델오페라 및 오라토리오 공연, 독일MDR 오케스트라와 바그너의 오페라 <태양의 불꽃> 음반 출시, 데레프스키 오페라 <만루> 음반출시, 헨델의 브로케스 수난곡 영상출시
-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 음악대학교 마스터클래스 강사,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악대학교 강사 역임
- 독일 할레 슈타츠헤펠레 극장 베토벤 '나인 심포니' 등 오라토리오 40회 이상 공연, 독일 파사우 갈라콘서트, 독일 드레스덴 쟈퍼 오퍼, 라이프찌히 게반트하우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더블린 국립음악홀, 프라하 국립극장 등 해외 공연 수십회 출연
- 헨델, 텔레만, 몬테베르디 등 고전오페라 50회 이상 공연, 오페라 <파우스트>, <라 보엠>, <나부코>, <운명의 힘>, <멕베스>, <안나 볼레나>, <루치아>, <아드리아나 르쿠브리르>, <마술피리>, <루루>, <오리백작>, <세비야의 이발사>, <장미의 기사> 등 80여편 오페라 국내 및 해외 주역 출연
- 현) 독일 할레 오페라하우스 종신 솔리스트



옥타비안 M.Sop. Octavian M.Sop. | **김선정** Kim Seonjeong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졸업
- 독일 브레멘, 카셀극장 등 유럽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
- 함부르크, 뤼벡, 브레멘, 플렌스부르크 등에서 콘서트와 오라토리오 공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및 여러 오페라작품에서 주역 출연
-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BS방송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등 다수의 교향악단 협연
-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등과 오라토리오 공연
- 오페라<카르멘>, <신데렐라>, <살로메>, <탄호이저>,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보체크>, <운명의 힘>, <오르페오>, <나비부인>, <심청>, <양철지붕>, <세비야의 이발사>,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옥타비안 M.Sop. Octavian M.Sop. | **안테아** An Tea

- 인천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체코 안토닌 드보르작 국제 성악콩쿠르 오페라부문 파이널리스트, 가곡부문 3위, 핀란드 "The Mirjam Helin" 미르얌 헬린 국제 성악 콩쿠르 3위, 오스트리아 Tiroler Sangerpreis 특별상, 슈만 국제 가곡콩쿠르 파이널리스트
- 예술의 전당 오페라 <리골레토>, <코지 판 투떼>, 스위스 괴테아눔 오페라 <파르지팔>, 독일 드레스덴 오페라 <영리한 암여우>, <마술피리> 등 주,조역 출연
-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출연, 2015 독일 드레스덴 쟈퍼오퍼 슈베르트 미사 솔리스트, 통영국제음악제 하이든 벨스 미사 솔리스트 출연, 독일 Junge Tonkunstler Orchester 초청 연주, 독일 마이센오마주 레치탈, 미국 아틀랜타 체임버 레치탈 초청연주
-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레테 극장 게스트 역임
- 현) 유럽 및 국내에서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파니날 Bar. Faninal Bar. | **권성준** Kwon Seongjun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라펠라 카셀라 국립음악원 수석입학 및 수석졸업, 이탈리아 오르토나 토스티 국립교육원 장학생
- 이탈리아 포텐차 스타빌레 국제콩쿠르 전체1위, 크로토네 스카라무짜, 라펠라 카셀라, 로마 뮤직인더 월드 국제콩쿠르 1위
- 이탈리아 오르토나 토스티극장 초청연주, 크로토네 초청독창회, 이탈리아 로마 콘칠리아찌오네 디 아우 디토리움 오페라 갈라 콘서트
- 이탈리아 로마 바흐, 생상,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포텐차 스타빌레극장, 페스카라극장, 라펠라극장, 테라모극장, 아트리 극장 오페라 <잔니 스키키>, <세비야의 이발사>, <카르멘>, <결혼대소동> 등 주역 출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비야의 이발사>, <카르멘>, <투란도트>, <라 보엠>, <잔니 스키키>, <리골레토>, <나비부인>, <돈 파스칼레>, <헨젤과 그레텔>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파니날 Bar. Faninal Bar. | **정제학** Jung Jaehak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사 졸업
- 독일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교 석사 최고점 졸업
- 세일한국가곡콩쿨, 광주성악콩쿨 입상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나비부인>,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팔리아치>, <살로메>, <투란도트>, <선덕여왕>, <안드레아 세니에>, <마술피리>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 출연
- 현)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 출강



소피 Sop. Sophie Sop. | **이혜정** Lee Hyejung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드레스덴 음악대학 디플롬 졸업(독일 DAAD장학생선정),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 석사 졸업,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동아 음악 콩쿠르 1위, 난파 음악 콩쿠르 대상, 중앙 음악 콩쿠르 2위, 시즈오카 국제 콩쿠르 2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3위,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3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3위, BBC 카디프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 존 아담스 "Girls of the Golden West" 실황 CD 발매(LA 필하모닉 &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한국인 여성 최초 오페라 <중국의 닉슨> 마담마오 역 데뷔
-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몽유병의 여인>, <마술피리>, <발퀴레>, <라인의 황금>,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스킬라와 글라우쿠스>, <지크프리트>, <랭스로의 여행> 등 미국, 유럽, 국내에서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국민대학교 성악과 교수



소피 Sop. Sophie Sop. | **박소영** Park Soyoung

- 서울대학교 성악과 수석 졸업
-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 알링턴 필하모닉 콩쿨, 캐롤라인&도미니크 아르젠토 콩쿨 1위, 성정음악콩쿨, 난파음악콩쿨 1위, 동아 음악콩쿨 3위
- 그래미 어워드 최고 엔지니어 상 및 최고 클래식 음반상 수상
- LA 오페라, 보스턴 리릭 오페라,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베를린 코미셰 오페 등 주역 출연, 뉴욕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등 협연,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협연
- 뉴욕 메트로폴리탄 <마술피리>, <로미오와 줄리엣> 주역
-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서울시오페라단<로미오와 줄리엣>, 대구오페라하우스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 오페라 주역
- 현) 경희대학교 객원 교수



쟁어(이탈리아 테너) Ten. Sanger(Italian Tenor) Ten. | **김효종** Kim Hyojong

- 연세대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졸업, 뤼벡 국립음대 석사 졸업 및 하노버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스페인 비냐스 국제 성악콩쿠르 3위, 독일 보칼 게니알 콩쿠르 2위, 코부르크 알렉산더 지라디 콩쿠르 1위, KBS신인음악콩쿠르 남자 성악 부문 1위, 제32회 중앙음악콩쿠르 남자 성악 부문 1위 수상
- 2012~2022 독일 브레멘 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 현) 연세대학교 출강



발자키 Ten. Valzacchi Ten. | **유호제** You Hoje

- 대구예술대학교 성악과 및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악과 졸업
- 독일 카셀 시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성악과 졸업
- 국립오페라단 <리골레토> 갈라콘서트, 독일 카셀 주최 오페라 <리골레토>, <돈 조반니>, <마술피리> 갈라콘서트, 슈만 서거 200주년 기념 음악회, '카르미나 부라나' 솔리스트
- 독일 카셀 콘서트 합창단, 대구시향, 경주교향악단, 부산 신세기필하모닉, 수성필하모닉, 대구필하모닉, 영남심포니 등 다수 오케스트라 협연 수석 회 연주 출연
- 오페라 <나부코>, <리골레토>, <박쥐>, <집시남작>,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외투>, <버섯피자>, <살로메>, <오텔로> 등 다수 주, 조역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발자키 Ten. Valzacchi Ten. | **이희돈** Lee Huidon

- 계명대학교 성악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오페라과 석사과정 최우수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춘향전>, <찬란한 분노>, <허왕후>, <박쥐>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 출연
- 2011년 바그너 장학회 장학생 선발,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객원단원, 잘츠부르크 여름음악 축제 합창단원,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강사역임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안니나 M.Sop. Annina M.Sop. | **이아름** Lee Arum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Würzburg 국립음대 Master 졸업
- 프랑스 Bourgogne 국제콩쿨 및 국내외 다수 콩쿨 입상
- 세계적인 소프라노 Cheryl Studer 에게 발탁
- 오라토리오 카리시미 '예프테', 비발디 '글로리아',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레퀴엠', 베토벤 '합창 환상곡', '나인심포니', 멘델스존 '엘리아' 등 알토 독창자 연주
- 오페라 <오르페오>, <달의 세계>, <마술피리>, <파우스트>, <일 트리티코>, <팔스타프>, <유쾌한 미망인>, <친구 프리츠>, <오이디푸스 왕>, <결혼>, <춘향전>, <게임오브찬스> 및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오페라 주, 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공증인/경찰 Bass Notar/Polizeikommissar Bass | **이기현** Lee Kihyun

- 계명대학교 성악과 졸업, 런던왕립음악대학 석사(PGCert) 수료
- JTBC 팬텀싱어4 출연
- 파파로티 전국 성악콩쿠르 1위, 성정음악콩쿠르 성악부문 금상, 대구성악콩쿠르 장려상, 마그다 올리베로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진주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성악부문 최우수상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살로메>, <라 보엠>, <잔니스키키>, <심청>, <달 빛>, <안드레아 세니에> 등 주, 조역 출연
- 2019 영국 옥스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토벤 9번 교향곡 베이스 솔리스트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Opera Awards Foundation, Josephine Baker Trust, 성정 & 황진 장학생
- 24/25 독일 카를스루에국립극장 데뷔예정
- 현) 비원뮤직홀 입주 음악가, 전문 성악가로 활동 중



마리안느 Sop. Marianne Sop. | **박누리** Park Noori

-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파르마 아리고 보이토 국립 음악원 만점 졸업
- 이탈리아 에뜨레 캄포갈리아니 국제 콩쿠르 입상
- 국립오페라스튜디오 1기 단원 역임
- 독일, 프라하, 이탈리아 오케스트라와 다수 협연 및 독일, 볼로냐 등 다수 극장에서 초청 연주 외 순회공연
- 현) 전문 성악가로 활동 중



가게주인/쟁어(이탈리안 테너) 커버 Ten. Der Wirt/Sänger(Italian Tenor) Cover Ten. | **이요섭** Lee Yoseop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음대석사 졸업
- 독일 국가장학금(Deutschlandtipendium) 장학생
- 21/22시즌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스튜디오 및 23/24시즌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 오페라 <박쥐>, <왕자호동>, <아틸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비밀결혼> 등 다수 오페라 주, 조역
- 현)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펜스튜디오



라카이/바론하인 Bar.
Lakaien/Lerchenau'schen Bar.

우영빈
Woo Youngbeon



라카이/바론하인 Bar.
Lakaien/Lerchenau'schen Bar.

소영섭
So Youngsub



라카이/바론하인 Ten.
Lakaien/Lerchenau'schen Ten.

장계초
Zhang Jichao



라카이/바론하인 Ten.
Lakaien/Lerchenau'schen Ten.

전목주
Tian Mu-zhou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악보담당 이상원 공연담당 정은영 홍보담당 황재웅 연수단원 정상미

Violin 1 박은지 장혜진 이지혜 양수빈 홍재완 류가현 장지은 김재은 박민서 이지애 Violin 2 노선균 김예성 이은영 장유진 정수현
 손효진 이소희 김연정 Viola 배은진 김효원 박선영 이정민 조민지 박예본 조재형 김예송 Cello 강윤선 박소현 설예은 최재영 김형기
 박소희 Contrabass 김석민 김지정 서한나 하우진 Flute 이한나 김민주 백선미(Piccolo) Oboe 배민주 최규연 편효린(English Horn)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이주는 윤성훈(B.cla.) Bassoon 조혜연 조윤주 김준민(Contra Bassoon) Horn 양삼영 김태우 송상호 최은지
 Trumpet 전성화 이혜연 이다정 Trombone 김진욱 이민정 이상빈 Tuba 민별근 Timpani 신현준 Percussion 권혜진 이희정 허동훈
 Harp 이은하 김채하 Celesta 이용희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한 단무장 배은경 사무 김애지 반주 류지원 임윤지 트레이너 조소희 전재민 총무 김준년

소프라노 강송지(시녀) 이신유 박주은(고아) 안유진 정경진 이주는 서아영 조소희(고아) 이다영 박예람 알토 이진아 김서현 한혜원
 정주현 서지원 권민선 문은초 권찬미(미용사의 조수) 박수정(고아) 박지원 테너 임진성(음악가) 지현태(파니날의 집사장, 웨이터) 박재민
 (웨이터) 권익현 이후영(마살린의 집사장, 음악가) 서영덕(음악가) 손병환(음악가) 박종민 정도영 베이스 전재민(여관의 일꾼) 박종섭
 문형우(웨이터) 김준년(플루티스트) 정민수 김대인(웨이터) 전이현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대표 및 총감독
Company general manager

김예진
Kim Yejin



미용사/경관
Friseur/Polizei

고봉조
Goh Bongjo



모하메드/경관
Mohammed/Polizei

윤제건
Yun Jegeon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Daegu Opera House Opernstudio



모자상인/킨더 Sop.
Die Modistin/Kinder Sop.

박예솔
Park Yesol



동물상인/킨더 Ten.
Der Tierhändler Ten.

한승엽
Han Seungyup



킨더 Bar.
Kinder Bar.

황준원
Hwang Junweon



킨더 Bass
Kinder Bass

박준모
Park Junmo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 **김현정** Kim Hyunjung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가구디자인) 졸업 이탈리아 브레라국립미술원 졸업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 교수 역임
- 오페라 <아랑>, <지귀>,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송년 오페라 갈라 <지크프리트의 검>, <세비아의 이발사>, <투란도트>, <마술피리>, <아이다>, <오텔로>,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안드레아 세니에>,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베르토 데브뢰>, 창작오페라 <박쥐>, <허왕후>, <양철지붕>, 연극 '오리사냥', '연애회곡', '콜렉션', '십이야', '아일랜드', '화금석', 국립창극단 '적벽' 등 무대디자인 및 신년음악회 터키만찬 전시회 등 참여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 **이재희** Lee Jaehee

- 숙명여대 의류학과, 센트럴 세인트 마틴 MA Scenography, 라반센터 MA Scenography for Dance 졸업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오텔로>, <돈 카를로>, <메피스토펠레>, <파우스트>, <어린이와 마법>,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룰루>, <리골레토> 등 작품 의상감독 역임,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가면무도회>, <돈 조반니> 무악오페라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카르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토스카>, <심청>, <나비부인>, 고양문화재단 오페라 <마술피리>, 춘천문화재단 오페라 <봄봄봄>, 국립창극단 <적벽가> 등 의상디자인



분장디자인 Make-up Design | **이정수** Lee Jungsoo

- 한성대학원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
- 미국 Make-up Designory special Make-up 수료, 한국 색채학회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
- 극동정보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무대분장 강사 역임, 국제대학 공연연기과 무대분장 강사 역임,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공연예술학과 무대분장 역임
- 국립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 <오를란도 핀토파초>, <보리스 고두노프>, <한 여름밤의 꿈>, <라 트라비아타>, <서부의 아가씨>, <라보엠>, 서울시 오페라단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토스카>, 대구오페라하우스 <아이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나비부인>, <돈 카를로>, <투란도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파우스트> 등 다수 오페라 분장 디자인 및 참여
- 현) Main make-up 대표



영상디자인 Graphic Design | **안재연** Ahn Jaeyeon

-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작품 전시기증 “HERO” 제주 무비스타 신영영화박물관, Vslab 빛장 그룹전 Projection mapping Group Exhibition 초청 작가, 청주공예엑스포 참여작가 선정 전시 “The Third skin Breathing space” 외 다수 작업
- 국립부산국악원 ‘대청여관’, 대구시립극단 ‘파우스트’, ‘비갠하늘’, ‘반딧불’, ‘벗나부 동산’, 오페라 <라 보엠>, <돈 카를로>, <나비부인>, <투란도트>, <박쥐>, <일 트리티코> 등 다수 작품 영상디자인 및 참여
- 현) 미디어 플랜트 대표, 영상디자이너로 활동 중



조연출 Assistant Director | **장소희** Jang Soh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창작뮤지컬 ‘토돌이의 모험’,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해전’, ‘어린왕자’ 등 다수 뮤지컬 조연출
- 창작오페라 <심산 김창숙>, <아! 징비록>,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아이다>, <돈 카를로>, <사랑의 묘약>, <로엔그린>, <가면무도회>, <라 보엠>, <모세>, <살로메> 등 다수 오페라 조연출
- 국내·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 활동 중



반주 Pianist | **은빛나** Eun Bitna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아 및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졸업
-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제반주콩쿠르 1위
- 세계적인 지휘자 리차드 보닝, 파비오 루이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등과 함께 부세토 카롤리 등지에서 다수의 콘서트 및 수심회 독창회 반주
- 오페라 <아이다>, <나부코>, <토스카>, <라 보엠>,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심청> 등 다수 작품 오페라 코치
- 현)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반주과 출강,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반주 강사



반주 Pianist | **박선민** Park Sunmin

- 영남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마스터과정 수료
- 이탈리아 도니체티 아카데미 반주 디플롬
- 영남대학교 강사, 경북도립예술단 피아니스트 역임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등 수심여 편 오페라, 콘서트 반주 및 연주
- ‘카르미나 부라나’, ‘베르디 레퀴엠’, ‘포레 레퀴엠’, ‘메시아’, ‘대관식 미사’, ‘나인 심포니’ 등 다수의 합창곡 연주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투란도트>, <아이다>, <나비부인>, <마술피리>, <토스카>, <돈 파스칼레>,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박쥐>, <카르멘>, <리골레토>, <세비야의 이발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보엠> 등 수심여편 오페라 반주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피아니스트, 대구예술영재교육원 강사, 대구음악협회 이사,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에반-알렉시스 크리스트
연출	조란 토도로비치
부지휘	한주현
무대디자인	김현정
의상디자인	이재희
분장디자인	이정수
영상디자인	안재연
조명디자인	문길환
프로덕션PD	한규리 구다운 박새별
무대감독	정진섭
조명감독	최진영
음향감독	차광석 조원호
조연출	장소희
조연출보	이아영
소품	조민영
반주	은빛나 박선민
통역	차시현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조감독	원현지
무대크루	구민우 소찬호 정종국 이지운 이경도 전진룡 이동원 심건수 김서울 김경도 박태원
조명크루	정유진 금명정 조경빈 김효진
의상크루	팀장 양지은 최지원 김나현 이지예
분장팀	메인메이크업 임상아 정선희 정일규 김하늘 전소현 정다원 이안나 조희진
무대제작소	온스테이지
의상제작소	CNL
소품제작소	하다
영상촬영	나무 앤 숲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공연기획팀	팀장 김민정 정유호 박형기 박선영 구다운 한규리 박새별 강지윤 김명진
교육사업팀	팀장 이효진 김유리 박지윤 최서윤 백지연 최수민 최보윤
무대예술팀	팀장 이효섭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시설관리팀	팀장 강영구 이철훈 장성훈 오준호
17기 오페라필	강서온 곽현진 구다운 권승현 김경준 김소화 김유림 김지현 김채영 김채인 박소현 박지승 엄채윤 이동규 이서진 이수진 이승찬 이여진 이지현 이채원 임채희 전지민 조승아 최소은 최아은 최자현 추서연 황주연
9기 오페라팬	권혜미 김수정 문보미 박수현 박인환 배순욱 백가은 이혜원 이혜인 임수진 장성민 장조휘 정영균 정유경 정은별 정지민 허진희



대구오페라하우스 멤버십

Daegu Opera House Membership

등급안내 Grade Guide

등급	연회비	서비스 기간
베르디	50만원	입회일로부터 1년
푸치니	30만원	

등급별 혜택 Benefits of each Grade

*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Verdi
베르디

- 기획공연 VIP석 티켓 6매 제공
- 멤버십 기본 혜택(공통) 제공



Giuseppe Verdi

Puccini
푸치니

- 기획공연 VIP석 티켓 4매 제공
- 멤버십 기본 혜택(공통) 제공



Giacomo Puccini

멤버십 가입 절차

Membership Registration Process



STEP 01

가입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내 멤버십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www.daeguoperahouse.org



STEP 02

멤버십 가입
서류확인 후 승인처리 후(7일 이내 소요예정) 가입



STEP 03

연회비 납부
멤버십 등급에 따른 연회비 납부
• 멤버십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4-10-480578-9
• 객석기부 입금계좌 : 대구은행 053-666-6000
• 예금주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STE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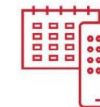
멤버십 입회 및 키트 발송
가입 후 특별한 선물과 혜택 제공

멤버십 기본 혜택 (공통)

Membership Basic Benefits



가입 기념 선물 제공
가입 기념 선물 패키지를 드립니다.



공연안내
매월 공연 일정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무료주차
공연 당일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FONDAZIONE
TEATRO
COMUNALE
DI FERRARA

2024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ANNO DELLO SCAMBIO
CULTURALE ITALIA-KOREA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합작

Orlando Furioso

A. Vivaldi **광란의 오를란도**

10. 11 Fri. 19:30 - 12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지휘 줄리오 프란디 / 연출 마르코 벨루시

오를란도 C.Ten. 필리포 미네치아 / 알치나 Contralto 소니아 프리나 / 안젤리카 Sop. 프란체스카 롬바르디 마줄리 / 브라다만테 M.Sop. 로리아나 카스텔라노
루지예로 C.Ten. 다닐로 파스토레 / 메도로 Controlto 키아라 브루넬로 / 아스톨포 Bar. 줄리오 알비제 카렐리 / 켈탈로 니콜라 라몬, 알베르토 마론
디오오케스트라 / 바로크성령오케스트라 / 대구오페라콰이어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구신세계 | 협찬 파버카스텔, 커피명가

With-line 1402_160x120cm_2024
Nam Tchun-Mo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KOFICE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민간공식인증 사업입니다.